

한·일 철새 네트워크 구축

조정웅 / 산림청 야생조수담당관

한국과 일본은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적 천연자원인 철새를 상호 공동의 노력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첫번째 한·일 철새보호협력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새는 다양한 형태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감동과 흥미, 친근감, 안정감,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연구성인자의 하나이다.

또한 새와 숲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를 보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박새가 한해동안에 잡아먹는 곤충이 무려 85천여마리나 되며 빠꾸기의 경우 1마리가 산림해충을 약 9만여마리 이상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같이 아주작은 새라 할지라도 그 자연환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

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한 생물이 생존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연생태계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으며 더욱이 철새는 국경을 넘나들면서 세계인류평화의 사도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세계공동의 재산인 철새는 어느 한 국가만의 보호조치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인접국가간의 상호 공동노력으로 철새의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간 철새보호조약을 이미 체결('94.6.2)하였으며 앞으로 한국, 일본간과 한국, 중국간의 조약체결을 추진중에 있다.

한·일 양국간을 오가는 철새중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는 러시아의 한 카호에서 살면서 번식을 하다가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중국의 삼강평원, 두만강을 거쳐 우리나라의 철원평야와 일본의 이즈미등에서 월동을 하는 철새로서 우리나라는 종자체를 1968년에 천연기

념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적색자료목록에 46호로 등록된 국제적인 보호새이다.

두루미는 옛부터 학(鶴)이라고 부르며 신선같은 새로 여기고 산, 물, 돌, 태양, 구름, 소나무, 거북, 사슴, 불노초와 더불어 십장생(十長生)가운데에 하나로 절식(節食)능력이 뛰어나서 천년이나 산다는 설이 있다. 요즈음 우리는 영양을 많이 섭취하고서 체중을 줄이려고 약을 먹는 등 법석을 떨고 있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두루미와 같이 평소에 적게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우리생활의 여러곳에서 크고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자태는 소나무위에서 쉬고 있거나 날아가는 모습을 화폭에 담게 하였고 천마리 학을 접어 선물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소박한 바람과 아픈 사람에게 천마리 학을 접어 보내주면 완쾌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두루미는 사람과 같이 일부일처(一夫一妻)로써 가족단위로 생활하면서 사랑은 이삼월에 하는데 부리를 하늘로 향하고서 수컷과 암컷이 거둬서 마주 울기를 통해 자기과시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를 학춤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서식하는 두루미류를 비롯한 철새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및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철새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하고 관련국들

과의 협의를 벌이기로 하였다.

네트워크 구축방안은 두루미류 등 철새 서식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철새목록』과 『한·일 두루미 보전행동계획』을 만들어 보호하는 한편 철새들에게 공동의 표지를 부착해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 등이다.

멸종위기 조수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하여 한·일 양국은 랍사협약(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호협약)에서 상호협력하고, 러시아 아모르강유역에서 호주남단 알바니까지 약 1만km이상을 이동하던 중 봄, 가을에 우리나라의 해안가에 기착하는 물새의 보호를 위하여 동아시아-호주지역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철새보호협력체제 구성에도 합의한 바 있다.

그외에 한·일 양국간 야생조수정책을 발전시킬 정보교환과 양국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97년 5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회의합의록을 작성하여 양국정부가 교환키로 하였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첫걸음을 내딛는 한·일 철새보호협력회의가 양국의 야생조수보호와 양국간의 우호협력기반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